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 J 리그에서 활약한 주된 한국인 선수
- 현대 J 리그에서 활약중인 한국인 선수의 고초
- 재일교포 선수
- 역사적 배경
 - 전쟁전의 한일축구의 역사
 - 전쟁중의 한일축구의 역사
 - 전쟁후의 한일축구의 역사
-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이석준)

2002년 한일 공동기초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 J리그에서 활약한 주된 한국인 선수 ~

* 노정윤 세렛소 오사카

1971년 3월 28일생. 92년의 올림픽, 94/98년의 월드컵에 출전. 작년은 네덜란드의 NAC브레다에 소속. 드리블의 돌파력에 정평이 있다. 171cm 68kg.

일본에서의 선수경력이 가장 긴 노정윤은, 일본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각오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에 오면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일본에서 생활하기 곤란합니다. 김치가 없으면 단무지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황선홍 세렛소 오사카

1968년 7월 14일생. 독일의 레바구센에서의 경력을 가진, 90년대 한국을대표하는 스트라이커. 국제 A매치 84시합에서 45득점을 올림. 183cm 79kg.

* 홍명보 가시와 레이소르

1969년 2월 12일생.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 90년부터 3회연속 월드컵 출전. 세계선발선수로 선발된 적도 있으며, 97년도에는 한국에서 사상최고연봉을 받음. 182cm 71kg.

* 유상철 요코하마 F 마리노스

1971년 10월 18일생. 98년 월드컵에서는 벨기에전에서 1골을 기록. 공수양면에서 우수한 MF. 아시아대회에서는 주장을 맡았다. 98년의 K리그 득점왕. 184cm 78kg.

* 하석주 뷔셀 고오베

1968년 2월 20일생. 98년의 시즌 도중에 세렛소에서 이적. J1 잔류에 공헌.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 원말로 일본대표팀을 고생시켰다. 애칭 “오야분(우두머리의 뜻)”. 174cm 72.5kg.

* 김도훈 뷔셀 고오베

1970년 7월 21생. “한국의 폭격기”의 별명을 가짐. 대형 스트라이커. 작년 33시합에 출전, 17득점을 올림. 94년부터 대표선수, 98년 월드컵에도 출전. 183cm 78kg.

* 최성용 뷔셀 고오베

1975년 12월 25일생. 고려대를 졸업하고 군대에 복무,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프로를 일본에서 경험. 발군의 스피드를 가진 올라운드 선수. 174cm 70kg.

2002년 한일 공동기회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 현재 일본에서 활약중인 한국 축구선수의 고초 ~

노정윤이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왜 한국을 버리고 일본에 가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매스컴의 비판도 컸으나, 한국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93년에 산프렷찌 히로시마에 입단했다.

초기에는 시험 다음 날에 일본어학교에 가서 일본어공부를 했는데, 지금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들에게는 각자 통역이 있다. 또한 한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은 한 달에 10만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봉의 대부분을 한국의 부모님께 송금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93년에는 미국에서 월드컵을 위한 한국 대표팀 합숙훈련이 있었는데, 노정윤은 대표팀의 시험이 있을 때만 팀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엄격한 한국에서는 비판이 많았다. 그리고 아시아 최종예선전에 참여했을 때에는 “일본의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홍명보는 미국 월드컵에서 2득점 1어시스트 등의 활약으로, “아시아최고의 리베로”라고 불렸으며, 그의 이름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은 권유를 받았으나, 소속팀인 포항이 그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해가 지남에 따라 권유도 적어졌으나, 97년네 베르마레 히라츠카에서 권유가 왔을 때에 팀을 설득하여 베르마레에 소속하게 되었다. 결국 홍명보가 일본에 진출한 것이 한국 선수들의 해외진출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IMF 경제위기가 한국에 닥치자,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구선수를 비롯한 스포츠 선수들(선동열, 박찬호, 박세리 등)의 해외진출이 장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우울해 하는 한국국민에게 해외에 진출한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이 즐거움을 주게 되었다.

1999년도의 뷔셀 고오베에서는 팀 외국인 TO 3명 모두가 한국인이었다(하석주, 김도훈, 최성용).

2002년 한일 공동기획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 재일교포선수 ~

* 현신철 베르디 가와사키

1973년, 오사카에서 태어남. 기타오사카 조선초중급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고, 부모의 일 관계로 구라시키에 전교.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축구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하여 혼자 오사카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졸업후, 긴키대학에 진학했다. 94년 여름에 베르디 가와사키의 입단 시험을 보고 입단하여, 1996년 시즌에서는 J리그 데뷔를 했다(6시합 2득점 1아시스트). 장신을 활용한 해딩이 무기. 185cm 75kg.

* 신재범 제프 이치하라

현실철과 같은 민족학교를 졸업하여, 프로리그에 본명으로 등록된 제1호 선수.

J리그에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1990년 9월 13일 시행)이 있다.

1. 학교교육법 제1조에 정하는 학교(민족학교는 해당외)에서 교육기본법 4조에 정하는 의무교육중인 자, 또는 의무교육을 수료한 자.
2. 학교교육법 제1조에 정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자.

앞의 1,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J리그가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5명 이외에 한 팀 1명만 등록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공동기획 축구 월드컵을 앞두고

~ 역사적 배경 ~

★ 전쟁전의 한일축구의 역사

메이지(明治) 정부는 해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국식을 따르게 되었다. 일본을 방문한 더글러스 소령일행은 여가로 축구를 즐기면서 지냈다. 원래 일본의 상류사회에는 “축국”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공을 치고 즐기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에서 체육 습득에 힘을 쏟던 중, 영일동맹을 계기로 우호관계에 있던 영국의 축구경기가 도입되어, 그후 사범학교의 졸업생들이 일본전국에 부임함에 따라 축구가 전국에 보급되었다.

★ 한국축구의 시작

1882년 영국군함 “프라이밍 피시(Flying Fish호)”가 입항하여, 그 선원들이 무단 상륙하여 기분풀이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축구보급의 역할을 맡은 것은, 영국인 교사나 선교사들이었다. 관청의 클럽, 외국어학교, 교회등에서 영국인의 지도를 받아 축구를 배우는 사람이 증가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체육수업에 축구를 도입하는 학교도 많아졌다.

1921년에는 제1회 전국축구대회도 개최되었다. 그러나 각 팀의 룰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만에 중지되었다.

1926년 4월에는 오사카 축구클럽팀이 조선을 방문하여 네 번의 경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조선 27대국왕 순종의 승하로 인해 두 경기만이 실시되었다. 결과는 일본의 1무1패이었다. 또한 그 해의 10월에는 조선축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여덟 경기를 치루어 5승 3무의 우수한 결과를 남겼다. 그 배경에는 “한 시험이라도 질 수는 없다. 패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1910년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본의 굴욕적인 식민지정책을 실시했다. 조선축구단에게 그 굴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기대도 컸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과 한국의 축구의 시작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한일의 축구를 보면, 한국·조선에서는 전전·전쟁중·전후는 세계사, 한일사의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이 일본과 한국(조선)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도 오사카의 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하여, 축구를 통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전쟁중의 한일축구의 역사

1936년의 베를린올림픽에서는 한국(조선)의 선수 7명이 참가했다. 마라톤의 손기정, 남승용, 축구의 김용식, 농구의 장이진 등이다.

1940년에 동경올림픽이 개최되게 되어, 일본축구협회에서는 대표선수들의 강화가 급무이었는데, 처음에 한 것이 조선의 선수를 보다 많이 선발하는 것이었다. 김용식, 배종호, 김성강, 이유현 선수가 합류했다.

1937년 노강교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본과 중국의 다툼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었다. 1938년 이후는 거국적인 준 전시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1938년 7월 15일에 동경올림픽 개최를 취소하기로 하여,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예를 들면 「내선일체」라는 구호 아래, 동화정책으로 한반도의 학교 교육에서 한글을 없애고, 「창씨개명」으로 고유의 성명을 빼앗았다.

메이지(明治)신궁 체육대회와 전일본종합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나, 축구선수권은 축구만 하는 대회이었기 때문에, 신궁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더 조선의 힘을 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대회에 모든 힘을 쏟았다.

1939, 1940년에 개최된 일본, 만주, 중화민국이 출전하는 일만화 교환경기대회나 동아경기대회에는 동경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한국(조선)선수가 일본대표로서 출전했다.

1941년 메이지신궁 체육대회에서는 조선축구팀 평양일곡이 우승하여, 응원했던 관객들도 객석에서 그라운드로 수백명이 내려가 그 기쁨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었다. “메이지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메이지 신궁의 이름을 붙인 신성한 대회에서, 그 존엄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일본의 대회관계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조선축구협회는 조선총독부에 정식 사죄하고, 우승기를 반환하였다. 그리고 조선축구대회도 중지되었다. 1941년이라고 하면, 진주만 공격이나 싱가포르 진격 등, 일본이 제국주의의 자멸로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 전쟁후의 한일축구의 역사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에는 “만세”의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해 9월에는 조선축구협회(현재의 대한축구협회)가 재건되고, 그 2년후에는 F I F A에 가입하였으며, 6월에는 I O C에 가입하였다.

일본에서는 전후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여유가 없었으나, 열의있는 사랑들에 의하여 중단되던 전일본선수권대회가 1946년에 개최되었다. 1947, 1948년에는 동서대항시합이 실시되고, 전일본선수권대회는 중지되었다. 1947년 4월 3일의 시합은 처음으로 일본천황이 관망하였고, 48년에는 처음으로 천황배 대회가 개최되었다. 1949년에는 전일본선수권대회가 재개되었다.

1953년 10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전국체육대회에 재일한국인 청년이 축구팀을 결성하여 참가하였다.

1954년의 스위스 월드컵대회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중 한국만 본선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원래는 양국에서 실시되어야 할 두 시합이 모두 일본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 이승만은 “36년간이나 일본에 의하여 억누름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지면 다시 식민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투신할 정도의 각오로 가라. 그 각오가 없으면 일본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참고자료

「Number」 1999年 4月号. pp.83-89.

「知られざる日韓サッカーの激闘史」 康奉雄 1998年 広済堂

「100人の在日コリアン」 良知会編 1997年 三五館

「在日本大韓体育会史」 在日本大韓体育会 1992年 金英宰

「入門 朝鮮と日本の歴史」 久保井規夫著 1988年 明石書店